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Determinants of Husbands' Housework Time

서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이승미

Dept. of Home management, Seowon Univ.
Instructor. Lee, Seung Mie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married men's time allocation in housework. A multidimensional theoretical approach employing the perspectives of time availability, relative resource, sex-role ideology was employed to explain variations in husbands' participation in housework. In addition, the effects of several socio-demographic variables were investigated. Data for 226 cases were gathered from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ime diary.

Results indicated that the sex-role ideology perspective was significantly supported, and the time availability perspective was partially supported.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evidence was found for the effect of relative resource on husbands' housework. The age of husbands in socio-demographic variabl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mount of husbands' housework time.

I. 문제의 제기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가정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혼여성의 취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새로운 기술진보에 의해 남녀간의 물리적 차이가 감소된 점, 서비스산업의 확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활용 등과 같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아울러 자녀수의 감소,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에 대한 태도변화,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의 욕구와 같은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변화(김태홍, 1993; 조희금, 1993)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취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부부간의 역할구조체계-남성은 직업노동을 통해 부양의 의무를 담당하고 여성은 가족내의 내적 요구를 책임지는 가족형태-와는 다른 역할분담체계를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기대는 현대의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남편상, 아버지상에 대한 재정립, 남

성의 보다 인간적인 삶의 모색 등과 같은 새로운 움직임에서부터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가족의 증가와 함께 1970년대에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시간사용의 실증적 조사자료에 의하면 실제 남성들이 가사에 소비하는 시간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Walker & Woods, 1976; Robinson, 1977; Pleck, 1982, 1985) 기존의 전통적 가족의 노동분담을 설명해주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부부간의 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적 논의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Nikols & Metzen, 1982; J. Pleck, 1985; Y. Kamo, 1988; Blair & Lichter, 1991; M. Ferree, 1991; E. Bergen, 1991). 그러나 그 논의가 다양한만큼 연구결과 또한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특정한 관점에 의해 설명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이 부분적으로 노동분담현상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국외의 활발한 논의와 달리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와 관련한 80년대의 국내연구

로는 가족성원간의 가사노동분담(이정우, 1972; 서영숙과 조필교, 1976; 김미숙, 1986; 송혜림, 1988 재인용)이나 가족의 역할구조분석(육선화, 1980, 1982)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대다수이며, 남편의 역할수행이나 가사노동참여 실태를 다룬 연구(신혜섭, 1985; 송혜림, 1988)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참여정도를 리커트척도에 의한 질문지법으로 부인을 통해 조사하고 있어 남편의 실제적인 가사노동시간을 파악하는데는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간일지법을 이용한 시간조사가 최근들어 이루어짐에 따라 실증적인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여부 또는 가정생활주기별로 부부의 전체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하에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을 뿐이다(이기영의 3인, 1994; 이기영·이승미,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초점을 두어 실제 가사노동시간의 분석 뿐만 아니라 시간별 가사참여는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가사노동영역별 참여여부의 비율은 어떠한지를 분석함으로써 남편의 가사참여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이와 아울러 남편의 가사노동의 편차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영향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분담현상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사노동의 개념

가사노동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가사노동을 구성하는 활동 또한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 특히 가사노동시간 연구와 관련하여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느 활동을 가사노동에 포함시키는지 하는 가사노동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은 자녀양육이다.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House work)을 구분하여 이 모두를 가족노동(Family work)으로 정의한 연구(Pleck, 1985), 자녀양육을 제외한 가사과제만으로 부부간의 노동분담을 분석한 연구(Nickols

& Metzen, 1982; Blair & Lichter, 1991; Ferree, 1991)가 있는가 하면, 자녀양육을 포함한 연구(Walker & Woods, 1976; Kamo, 1988; Shelton, 1990; 송혜림, 1988)에서와 같이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창출하는 노동으로서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노동, 즉 소비의 조건을 마련해주는 소비노동과 자녀양육 및 가족의 배려와 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노동, 그리고 계획, 기록 등을 포함하는 관리적인 노동으로 구성된다는 개념정의(이기영, 1987)에 근거하여 볼 때 자녀양육은 가사노동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적 접근

남편의 가사참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론 혹은 가설들은 크게 두가지의 대조적인 시각, 즉 기능주의적 시각과 이에 반박하는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능주의적 시각

기능주의적 사고를 토대로 부부간의 노동분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혹은 가설은 자원이론과 경제적 효율가설을 들 수 있다.

먼저 자원이론은 Blood & Wolfe(1960)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서 가족의 노동분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사과제는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기 보다는 특성상 지루하고 단조롭기 때문에 가장 요구되는 자원은 시간이다. 또한 대개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은 주부인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부는 가정밖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 가족형태를 동일하게 구성하게 하는 이유는 결혼에 있어 남녀는 생물학적/사회적 차이에 의해 상이한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자원의 제공이 상호간에 달라진다면 가족의 노동분담은 새롭게 적응하게 된다”(Blood & Wolfe, 1960: Pleck, 1985 재인용).

경제적 효율가설은 가족행동에 대한 새로운 경제학적 모델을 제시한 신가정경제학(New

home economics)파의 시간배분이론에서 파생, 발전되어온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가족구성원은 가족전체의 최고의 효율을 얻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 또는 성과에 따라 자신의 시간을 다양한 활동(예를 들면 시장노동, 가사노동, 여가)에 배분하며, 경제적 효율성은 노동시장과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임금율과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Becker, 1976; Berk, 1980). 따라서 남편이 가정내의 노동보다는 시장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남편의 시장노동에서의 효율성, 즉 임금율이 부인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상의 두가지 이론을 토대로 부부간의 노동분담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가설이나 관점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의한 맞벌이가족의 등장으로 부부간의 노동분담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되면서 더욱 그러하다. 많은 연구자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가설들로는 시간유용성(Time availability) 가설, 상대적 자원가설, 가족권력 가설, 경제적 효율가설을 들 수가 있는데, 이 가설들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이해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간유용성 가설에 의하면 이용가능한 시간이 많은 사람(배우자)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며, 배우자(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의 증가는 나머지 배우자(남편)가 해야 할 가사노동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전형적으로 시장노동시간이 긴 남성일수록 다른 남성보다 가사노동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며,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을 반영하는 고용지위에 따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고용지위, 주당 노동시간, 또는 노동시간의 융통성을 변수로 선정하고 있다(Kamo, 1988; Blair & Lichter, 1991; Ferree, 1991; 송혜림, 1988; 허경옥, 1994). 상대적 자원가설과 가족권력 가설은 연구자에 따라 서로 같은 개념으로 대응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¹⁾ 이 관점에 의하면 부부의 교육과 노동력, 나아가 취업 노동참여에 따른 수입정도 등과 같

은 부부간의 외적 자원이 가족내의 내적 분배력을 결정하고 이것이 부부간의 노동분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의숙·서창원, 1986). 따라서 부인에 비해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편일수록 가사노동에 적게 참여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부인과 남편의 소득 또는 소득 차이, 부부간의 교육수준 또는 교육수준 차이를 변수로 선정하고 있다(Kamo, 1988; Blair & Lichter, 1991). 또한 경제적 효율가설은 앞서의 설명과 같이 가족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부가 각자의 임금율을 비교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여 노동을 전문화한다는 것으로, 부부의 임금율이 변수로 선정되고 있다(허경옥, 1994).

그런데 경제적 효율가설에 의한 설명은 앞서의 상대적 자원가설(가족권력가설 포함)이 가족원의 시장노동, 가사노동 모두를 경제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활동으로 개념화하여 오늘날의 현상을 가장역할의 공유와 가족협상의 산물로 파악하는데 반해, 가족원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족 노동분배의 합리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경제학적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크게 구별되지만, 이상의 다양한 가설들은 부부간의 노동분담이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합리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남녀간의 불평등성과 이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2) 페미니즘적 시각

60-70년대의 시간사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주부의 남편이 전업주부의 남편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자원을 토대로 남편과 부인간의 공평한 교환의 결과로 남편의 제한된 가족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더 이상 지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는 하나의 노력은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가족에 대한 세가지 비판 중의 하나인 부부간의 노동분담, 즉 남편과 자녀에 대한 부인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여성역할의 한 원인으로 파악한 것을 토대로 부

1) 가족권력가설을 상대적 자원가설과 구분하여 연구한 Y.Kamo(1988)에 의하면 결혼생활에서 상대적 권력정도에 따라, 즉 권력이 적을수록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두 가설이 같으나 권력의 토대가 되는 배우자의 자원외에 남편과 부인의 인성조합에 의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파악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부부간의 복종정도와 의사결정권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한편 Blair & Lichter(1991)는 상대적 자원가설 대신 가족권력가설을 사용하였다.

인이 취업한 경우에도 여전히 가사노동의 책임은 여성의 몫이며 이에따라 취업주부는 이중역할문제를 겪게된다고 비판하면서 이의 원인을 남녀간에 오랫동안 관념적으로 뿌리깊히 내재된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이에 의한 행동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나 다른 사회문화적 기관에 의한 사회화, 즉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역할 학습을 통하여 지배, 공격, 수단성의 남성적 성역할과 복종, 온순성, 양육의 여성적 성역할이 형성되는데 일단 학습된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통제기제를 통해 유지된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 즉 규범들은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해야하는 의무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며, 성역할 지향은 가족과 취업에 대한 책임감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 자신의 규범적 규정을 반영하는 역할에 대한 개인의 선호로 파악된다(김외숙서창원, 1986). 따라서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부부간의 노동분담, 즉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하면서 (Barnett & Brauch, 1987; Kamo, 1988; Blair & Lichter, 1991; Ferree, 1991) 근대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가진 경우가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가진 경우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여 가사노동시간이 길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성역할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Pleck, 1985; Kamo, 1988; Blair & Lichter, 1991),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감과 평등성에 대한 관심도와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를 변수로 설정한 연구(Ferree, 1991)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하여 시간유용성 가설, 상대적 자원가설, 성역할 이데올로기가설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 개념틀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영향요인으로는 시간유용성 가설에 근거한 남편의 수입노동시간, 부인의 취업지위를, 상대적 자원가설에 근거한 남편소득, 부인소득을, 성역할 이데올로기가설에 근거한 남편의 성역할태도를 선정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남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연령과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의 실태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남편의 전체 가사노동과 영역별 가사노동 수행시간 및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 2)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조사도구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와 하루 24시간을 10분단위로 나누어 구성한 시간일지표(time diary) 두가지로 구성되었다.

(2)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을 구성하는 하위영역과 이에 속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식생활 : 음식만들기, 상차리기, 식사 후 정리, 설거지.
- 주생활 : 잠안침소 및 정리, 정원이나 베란다청소, 자동차 세차, 화초 돌보기
- 의생활 : 세탁, 다림질, 옷정리, 재봉이나 옷수선.
- 구 매 : 시장보기, 백화점쇼핑.
- 자녀의 신체적 돌보기 : 기저귀갈기, 우유 먹이기, 아이재우기, 목욕시키기 등.
- 자녀의 비신체적 돌보기 : 공부돌봐주기, 아이와 얘기하기, 놀아주기, 학교나 유치원 데려다주기, 학부 모회나 학교행사 참가, 수업참관 등.
- 가족원 돌보기
- 가정관리 : 가계부적기, 식단작성, 은행이나 동회일보기, 문단속등.

(3)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 척도는 이기영(1987), Pleck (1985)의 성역할태도 척도를 참고로 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매우 찬성'에서 '매우 반대'까지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63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 변 인 | 구 분 | 빈 도(%) |
|---------------------------|-------------|----------|
| 남편의 연 령 | 29세 이하 | 17(8) |
| | 30 - 39세 | 111(50) |
| | 40 - 49세 | 49(22) |
| | 50세 이상 | 47(21) |
| | 계 | 224(100) |
| 남편의 교육수준 | 고졸이하 | 55(25) |
| | 초급대졸 | 15(7) |
| | 대졸이상 | 154(69) |
| 계 | 224(100) | |
| 남편의 직 업 | 전문직 | 38(18) |
| | 관리·기술직 | 96(45) |
| | 사무직 | 34(16) |
| | 자영업자 | 39(18) |
| | 생산,판매,서비스직 | 8(4) |
| 계 | 215(100) | |
| 남편의 소 득 | 100만원이하 | 60(27) |
| | 101 - 150만원 | 88(40) |
| | 151만원이상 | 72(33) |
| 계 | 220(100) | |
| 부인의 취업지위 | 전일제취업 | 73(33) |
| | 시간제취업 | 35(16) |
| | 주 부 | 113(51) |
| 계 | 221(100) | |
| 남편의 수입노동 시간 ^{a)} | 570분이하 | 59(26) |
| | 571 - 700분 | 95(42) |
| | 701분이상 | 72(32) |
| 계 | 226(100) | |
| 남편의 성역할 태도 ^{b)} | 보수적 | 76(34) |
| | 중간적 | 104(46) |
| | 진보적 | 45(20) |
| 계 | 225(100) | |

a)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은 근무시간, 근무중 식사 시간, 통근시간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b) 평균(10.21)을 기준으로 하여 4-8점, 9-12점, 13점이상으로 구분하였다.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이기영 외 3인, 1994)에서 사용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자료의 수집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1992년 10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도구를 정교화하였으며, 생활시간에 대한 계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조사의 1차조사는 1992년 11월 둘째, 셋째주에, 그리고 2차 조사는 1993년 4월 둘째, 셋째주에 걸쳐 각각 200쌍씩 총 40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거주지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였다. 조사자는 서울대학교 소비자 행동학과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학생들로서 이들이 직접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설문지와 시간일지표 기입방법에 대해 다양한 활동의 예를 제시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평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의 시간 사용을 조사대상자가 기록하게 하였다. 동시에 두가지 일을 했을 경우에는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330쌍의 질문지와 시간일지표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자료 중 부실기재된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226쌍의 자료 중 남편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편의 주당 평균 가사노동시간과 영역별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포와 평균,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가사노동시간의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분석

1.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표 2>에서와 같이 주당 평균 4시간 30분, 하루평균 39분으로, 미국에서 행해진 많은 선행연구 결과-하루평균 1.6시간(Walker & Woods,1976), 하루평균 1.0

시간(Robinson,1977),하루평균 1.85시간(Pleck, 1982), 주당평균 6.9시간(Bergen, 1991)-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남편보다 훨씬 적게 가사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일별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의 경우 21분, 토요일의 경우 50분, 일요일의 경우 1시간 55분으로 나타나 남편의 가사참여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별 참여빈도를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30분이하인 경우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시간을 넘는 경우가 24%, 31분-1시간 사이가 21%였고, 전혀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N=226)

| | 주당평균 | 하루평균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
| 전체 가사노동시간 | 4시간 30분 | 39분 | 21분 | 50분 | 1시간 55분 |

주당 평균 가사노동시간 = (평일 가사노동시간 X 5) + 토요일 + 일요일.

<표 3>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별 참여빈도 (단위:주당 평균) (N=226)

| 가사노동시간 | 전혀 안한다 | 30분 이하 | 31분-1시간 | 1시간 초과 |
|--------|--------|--------|---------|--------|
| 참여빈도 | 36(16) | 88(39) | 48(21) | 54(24) |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을 영역별로 살펴 보면 <표 4>에서와 같이 자녀의 비신체적 돌보기의 경우가 1시간 26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주생활관련 가사노동(1시간 2분), 구매(48분), 자녀의 신체적 돌보기(36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식생활 관련(20분), 가정관리(10분), 의생활관련(5분), 가족원 돌보기(3분)영역은 주당 매우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노동 영역별 참여정도를 참여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영역은 주생활관련(5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자녀의 비신체적 돌보기(39%), 구매(38%) 영역에 어느정도 참여할 뿐, 나머지 영역에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여전히 남성형 과제나 공동형 과제에서만 이루어짐에 따라 부부간의 성별분리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M.Ferree, 1991)와 일치한다.

<표 4> 남편의 가사노동 영역별시간과 참여빈도

(단위:주당 평균) (N=226)

| 가사노동영역 | 가사노동시간 | 참여빈도(%) | |
|---------|--------|---------|---------|
| | | 참여한다 | 참여안한다 |
| 식생활 | 20분 | 51(23) | 175(77) |
| 주생활 | 1시간2분 | 124(55) | 102(45) |
| 의생활 | 5분 | 16(7) | 210(93) |
| 구매 | 48분 | 86(38) | 140(62) |
| 신체적돌보기 | 36분 | 44(19) | 182(81) |
| 비신체적돌보기 | 1시간26분 | 89(39) | 137(61) |
| 가족원돌보기 | 3분 | 12(5) | 214(95) |
| 가정관리 | 10분 | 31(14) | 195(86) |

2.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먼저 선정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표 5>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 변수 | 수입노동시간 | 남편소득 | 부인소득 | 성역할태도 | 연령 | 교육수준 |
|--------|---------|---------|--------|--------|--------|--------|
| 수입노동시간 | 1.0000 | | | | | |
| 남편소득 | -.0764 | 1.0000 | | | | |
| 부인소득 | .0726 | .1992* | 1.0000 | | | |
| 성역할태도 | .0698 | -.0816 | .1402 | 1.0000 | | |
| 남편연령 | -.2095* | .3780** | -.0316 | -.0990 | 1.0000 | |
| 교육수준 | -.031 | .3662** | .1276 | .1079 | .0188 | 1.0000 |

* P < .01, ** P < .001

변수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 증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남편의 성역할태도, 남편의 수입노동시간, 남편의 연령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요인의 변화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증감을 살펴보면,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1.879분씩 증가하며,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1분 길어질수록 가사노동시간은 0.367분씩 감소하고,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0.426분씩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편의 성역할태도($\beta=0.202$)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남편의 수입노동시간($\beta=-0.178$), 남편의 연령($\beta=-0.135$)의 순으로 나타나 성역할 이데올로기가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으며, 시간유용성 가설도 부분적으로 유효함을 알 수 있다.

<표 6>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변 수 | b값 | Beta값 | T |
|-----------------------|--------|--------|--------|
| 수입노동시간** | -0.367 | -0.178 | -2.546 |
| 부인의 취업지위 (시간제취업=1) | -9.669 | -0.126 | -1.588 |
| (주부=1) | -7.526 | -0.135 | -1.167 |
| 남편의 소득 | -0.022 | -0.061 | -1.730 |
| 부인의 소득 | -0.006 | -0.014 | -0.139 |
| 남편의 성역할태도** | 1.879 | 0.202 | 2.891 |
| 남편의 연령* | -0.426 | -0.135 | -1.729 |
| 남편의 교육수준 | 0.333 | 0.021 | 0.778 |
| constant | 54.241 | | |
| Multiple R | 0.357 | | |
| Adjusted R Square | 0.098 | | |

* $P < .1$, ** $P < .05$, *** $P < .01$

그러나 시간유용성 가설의 한 변인으로 선정된 부인의 취업지위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도 예상된 결과와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고 있다. 즉 전일제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의 남편이 가사노동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시간제 취업주부의 경우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과의 가사노동시간 차이가 앞서의 시간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가장 적게 가사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인의 소득, 남편의 소득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자원가설이 지지되지 않았으며, 특히 부인의 소득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가설에서 예상된 방향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질문지와 시간일지표를 통해 조사한 시간자료 중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은 4시간 30분, 하루 평균 39분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가사노동시간이 30분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39%로 가장 많았고, 전혀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과 참여여부의 비율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자녀의 비신체적 돌보기(1시간 26분, 39%), 주생활관련 가사노동(1시간 2분, 55%), 구매(48분, 38%) 영역에만 어느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여전히 남성형 과제나 공동형 과제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부간의 성별 분리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 가설 중 성역할 이데올로기가설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인정되었고, 시간유용성 가설도 부분적으로 유효하였다. 그러나 상대적 자원가설은 설명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남편의 성역할태도, 남편의 수입노동시간, 남편의 연령은 선행연구 결과나 가설에서 예측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수입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가족의 가사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아울러 남편의 근무시간의 단축과 같

은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시간일지법에 의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실태를 함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한 세가지 가설의 설정 하에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은 아니었지만 부인의 취업지위, 부인의 소득 변인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남편의 가사수행능력,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도, 가족구조, 부부 각자의 시간당 임금률, 남편의 직업관련 요인인 직업상의 스트레스나 만족감 등-이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부부간의 노동분담을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의 개발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외숙·서창원(1986),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제5집.
- 김태홍(1993),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과제",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171-192.
- 서영숙·조필교(1976), "가족성원간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4), 105-117.
-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섭(1985), "도시가정에서 남편의 가족역할 수행에 관한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육선화(1980),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 분석 I",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제11집, 77-91.
- (1982),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 분석 II",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제13집, 5-33.
-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영 외 3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이기영·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3), 11-26.
- 이정우(1972), "가족성원간 가사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0(2), 753-766.
- 조희급(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01-112.
- 허경옥(1994), "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시간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63-70.
- Barnett, R.C. & Baruch, G.K.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s and Family, 49, 29-40.
- Becker, G. (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rgen, E. (1991), "The Economic Context of Labor Allocation: Implication For Gender Stratific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2(2), 140-157.
- Berk, R.A. (1980), "The New Home Economics: An Agenda for Sociological Research", in S.F. Berk (ed), Women and Household Labor, Beverly Hills, CA: Sage, 113-148.
- Blair, S.L. & Lichter, D.T. (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Gender Segregation of Housework Among American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91-113.
- Ferree, M.M. (1991),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n Two-Earner Marriages: Dimensions of Vari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Family Issues, 12(2), 158-180.
- Kamo, Y. (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9(2), 177-200.
- Nickols, S.Y. & Metzen, E.J. (1982), "Impact of Wife's Employment Upon Husband's House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3(2), 199-216.
- Pleck, J. (1982), "Husbands' and Wives' Family Work, Paid Work and Adjustment", Working Paper, No.95.

- (1985), *Working Wives & Working Husbands*, Beverly Hills, CA:Sage.
- Robinson,J.P.(1977), *How American Use Time*, New York:Prager Publisher.
- Shelton,B.A.(1990),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Does Wife's Employment Statu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1(2), 115-135.
- Walker,K.E. & Woods,M.E.(1976), *Time Use: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AHEA.